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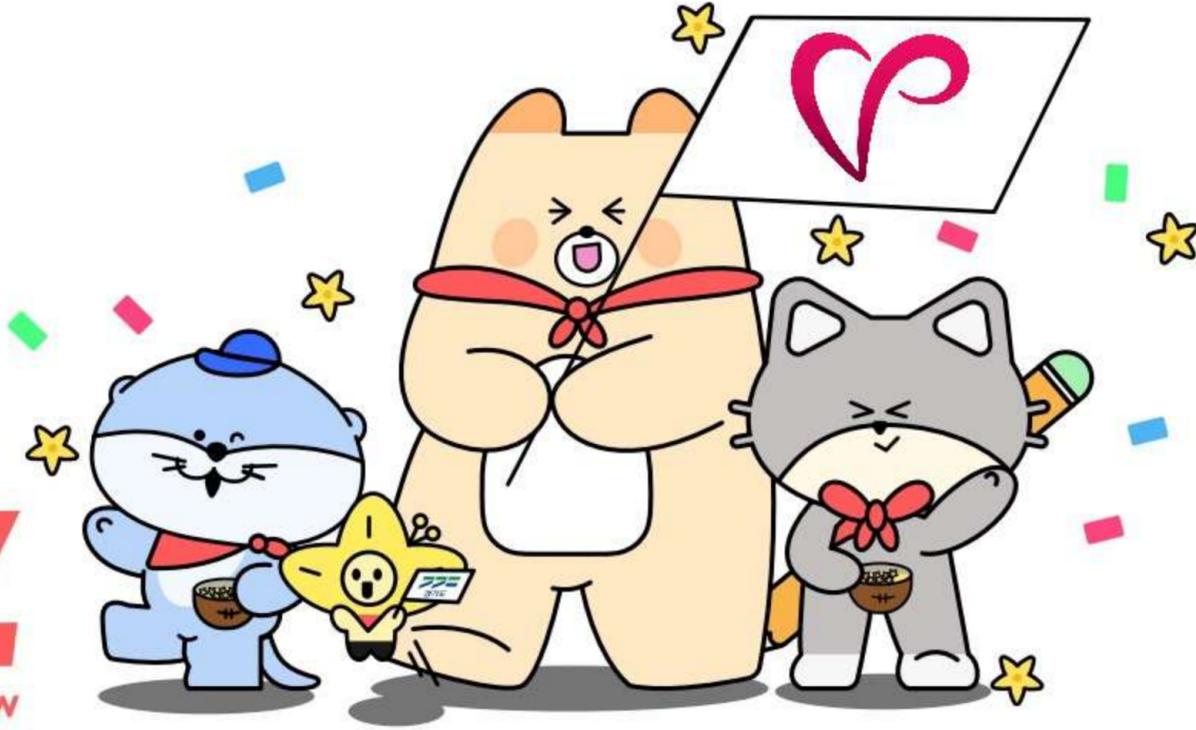
Douri
Bongdal
Mao
Nari

DOUZ

Gyungi-do Volunteer Crew

Character Story

DOUZ
Gyungi-do Volunteer Crew



도우즈(DOUZ)'는 경기도의 '도(道)'와, 무언가를 '도우다'는 따뜻한 마음, 그리고 '함께 돕는 친구들'을 뜻하는 '즈(-z)'가 만나 만들어졌습니다. 도우즈는 경기도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귀엽고 다정한 자원봉사 크루입니다. 듄직한 꿈, 도우리가 산속에서 만난 봉사자들을 통해 '도움의 마음'을 알게 되면서 시작돼요. 도우리는 봉사 여정을 다니며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세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죠.

모양도, 성격도, 좋아하는 것도 다르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은 하나예요:

“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경기도를 만들고 싶어요!”

각자의 자리에서, 각자의 방식으로 즐겁게 봉사하고 있는 도우즈 친구들! 잘하는 게 없어도,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, 우리는 매일이 행복하고 찬란하거든요. 더 나은 내일, 더 따뜻한 경기도를 위해 오늘도 함께 웃고 돕는 우리는, 도우즈입니다!

Character Lineup

봉달



환경

도우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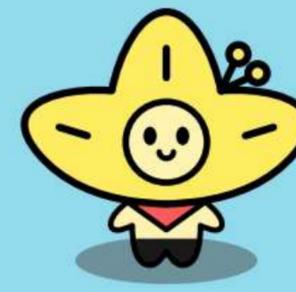
소통

마오



문화 교육

나리



연대

Introduction



DOURI 도우리

소통 # 따뜻함 # 시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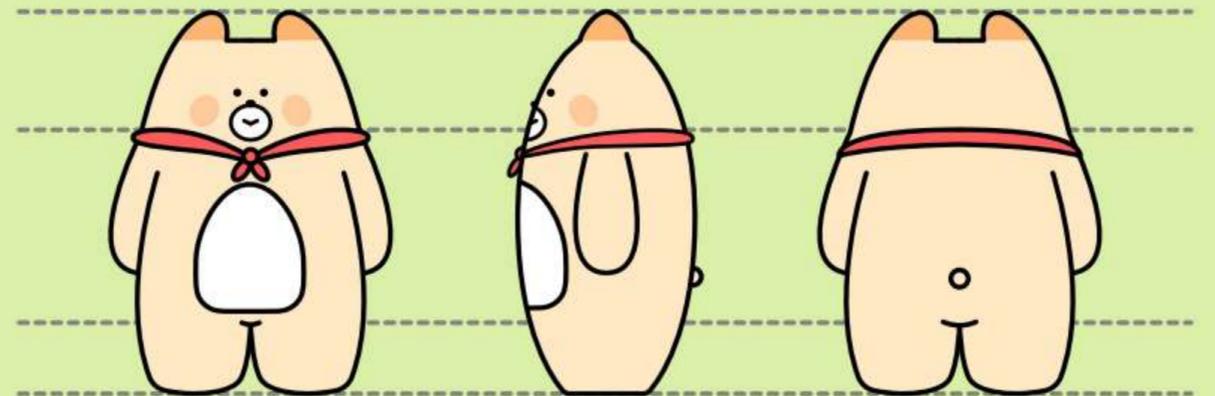
"함께할 때, 세상은 더 따뜻해져요!"

경기도 산속에서 추위에 떨던 도우리는 봉사자에게 받은 따뜻한 스카프를 계기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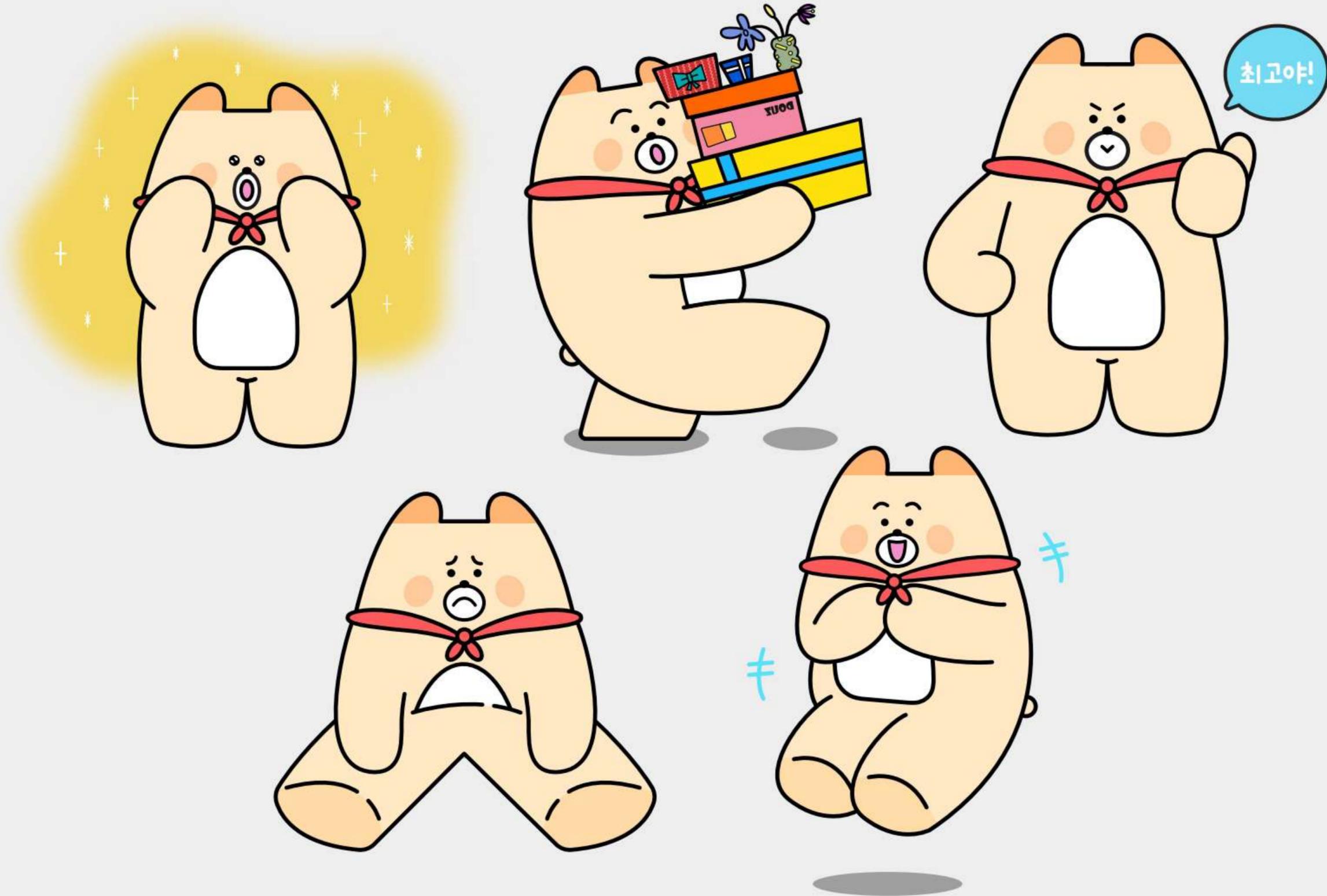
“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”는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.

여행 중 만난 친구들에게 스카프를 나눠주며 봉사의 마음과 공동체를 키워가는

도우즈의 따뜻한 시작점, 풋내기 봉사자랍니다.



Motion



Introduction

BONGDAL 봉달

환경 # 하천 지킴이 # 맑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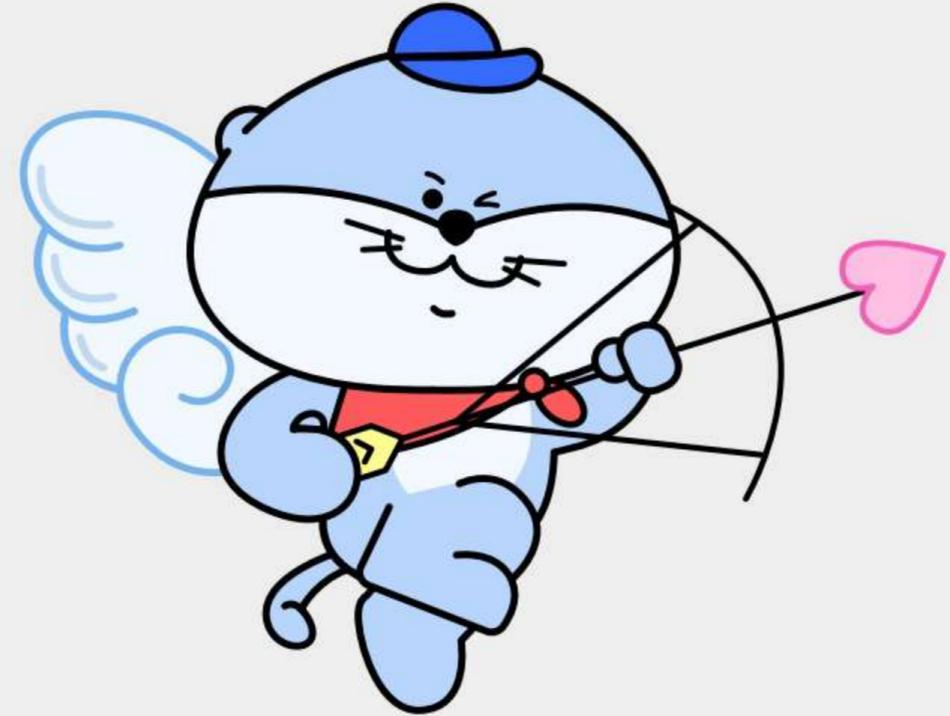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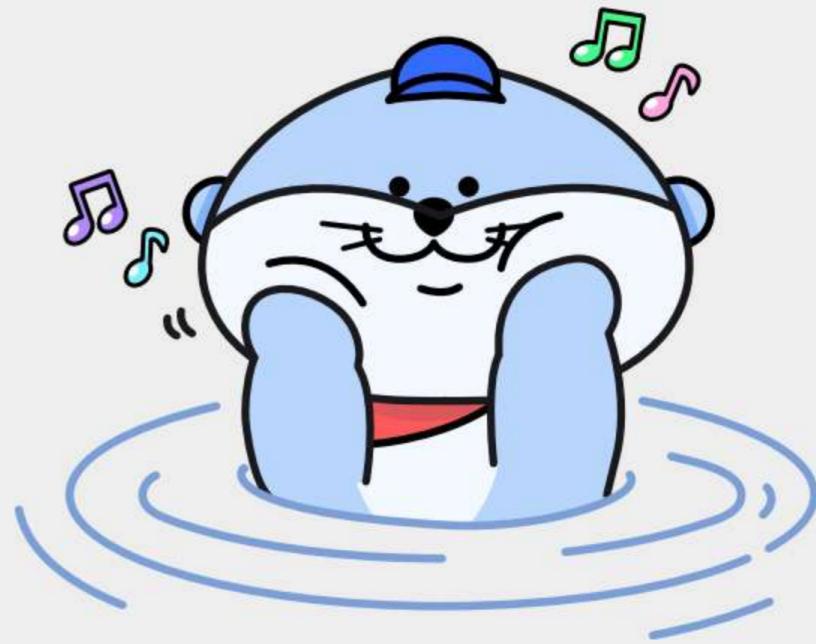
“맑은 물, 맑은 마음!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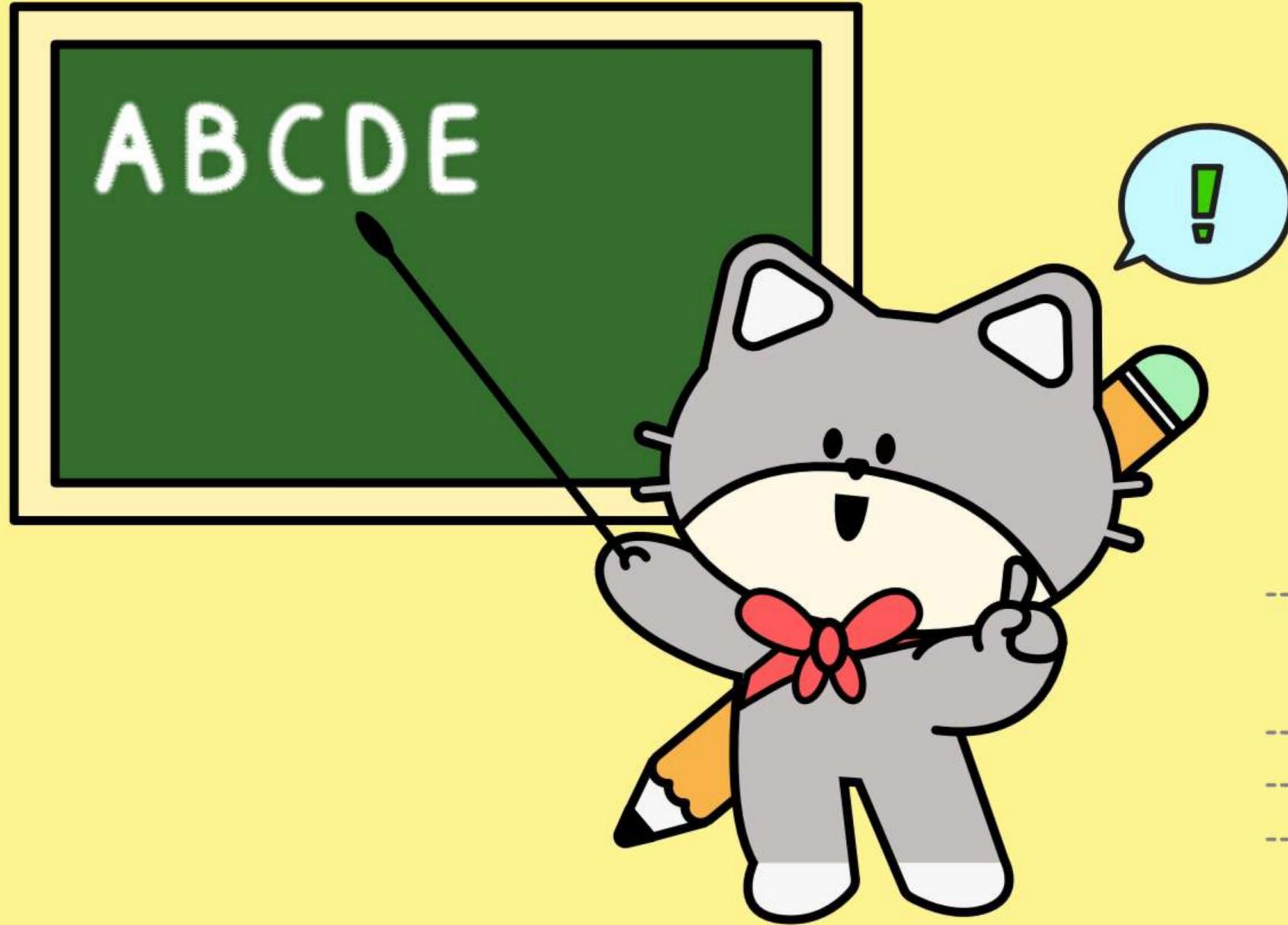
밝고 활발한 봉달이에게도 아픈 기억이 있어요. 어릴 적 경기도 하천에서 쓰레기에 갇혀 위험했던 봉달이, 누군가의 도움으로 무사히 빠져나온 후 결심했어요.

‘내가 사는 물길은 내가 지킬 거야!’ 지금은 하천을 정화하고 생태계를 돌보는 데 앞장서며, 맑고 시원한 마음으로 경기도를 반짝이게 만드는 작은 실천가랍니다.



Motion





MAO

마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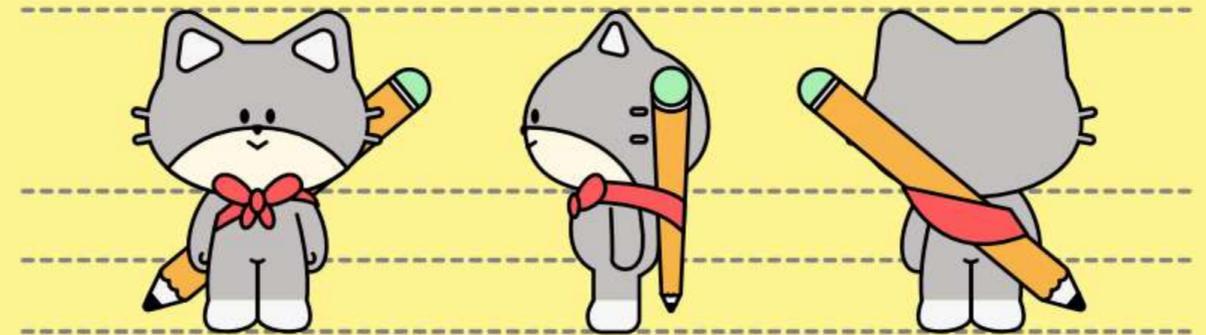
교육 # 문화 # 성장

"아이들과 꿈을 함께 나누는 시간!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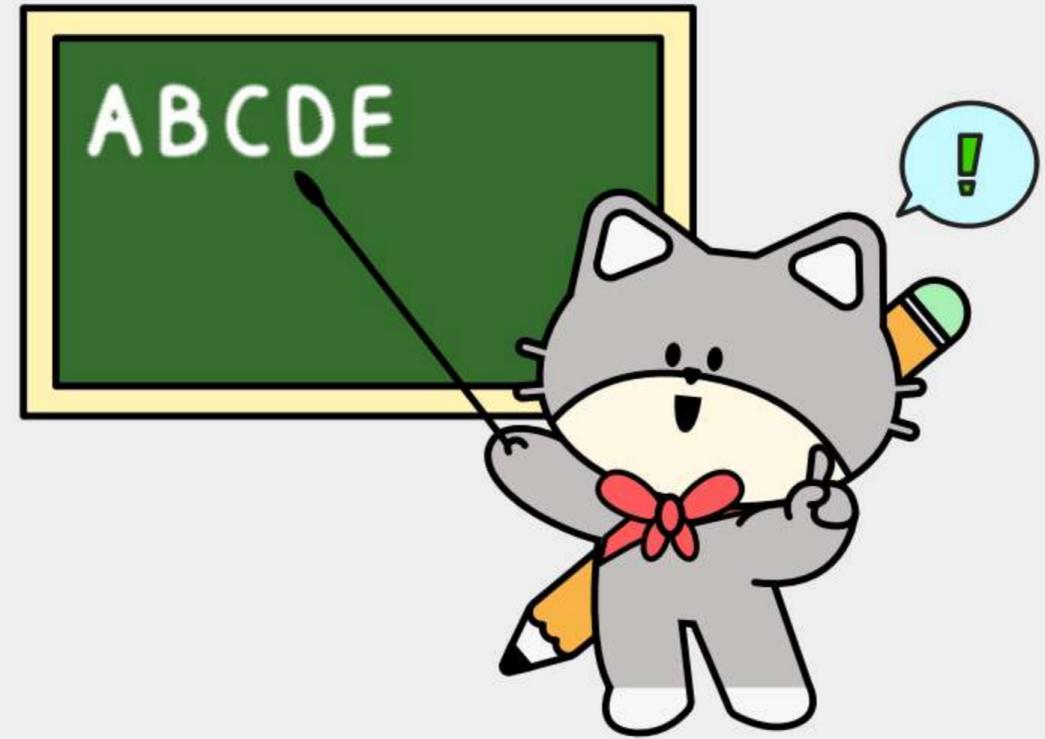
마오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.

아이들에게 한없이 다정한 마오는 언제 어디서나 메모하고 설명할 때 필수 요소인 큰 연필을 항상 지니고 다녀요. 하지만 가끔 장난꾸러기 친구들이

마오의 연필을 몰래 숨기는 짓궂은 장난을 치곤 한답니다.



Motion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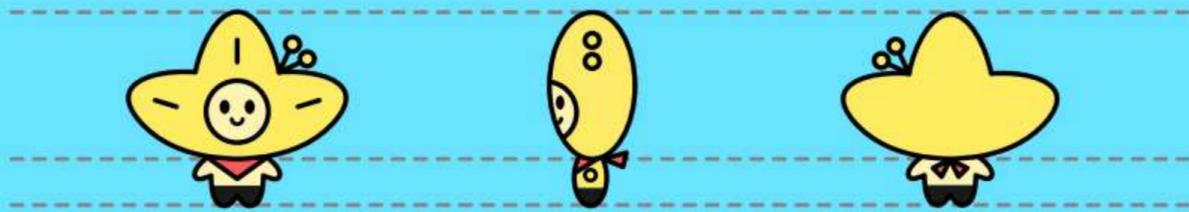
NARI

나리

연대 # 희망 # 치유

“작은 꽃잎 하나도 세상을 환하게 만들어요”

작은 몸이지만, 지역사회 곳곳을 누비며 그 누구보다 크고 환한 희망과 연대를 전하고 있습니다. 광주 남종면 들판 어딘가, 노란 개나리꽃 사이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나리를 마주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!



Motion

